

이재용 수사심의위 관전포인트

# ☑ 승계과정 불법행위 인지 ☑ 증거없는 기소 불합리성

수사심의위원회 공소제기 여부 심의  
삼성전자 경영공백 해소에 관심집중  
이르면 저녁쯤 결과... 늦을 가능성도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든, 외부로부터 타당성 여부를 평가받게 된다. 삼성전자가 '사법 리스크'에 따른 경영 공백을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을지 각계 관심이 집중된다.

25일 재계 등에 따르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예정대로 현안위원회를 소집하고 이 부회장 등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분야별로 3~4명씩 선정된 15명 현안위원이 맡게 된다. 이들은 이 부회장과 검찰 양측에서 제출 받은 각 50쪽 분량 의견서를 바탕으로 공소가 정당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관건은 의견 진술이다. 지난 부의심의위와는 달리, 이날 현안위에서는 이 부회장과 검찰 측에 30분간 의견 진술을 하고 현안위원 질문을 받는 절차를 추가했다. 양측은 이 기회를 이용해 심의 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제한된 시간 안에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프레젠테이션을 비롯한 여러 수단이 등장할 전망이다.

이 부회장 측은 감기동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검사 출신 변호인 등을 앞세울 것으로 알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려졌다. 김종중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 변호인 등도 참석한다.

검찰측에서는 주입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팀사부의 이복현 부장검사, 이 부회장 대면조사를 담당할 최재훈 부장검사, 의정부지검의 김영철 부장검사 등 3~4명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내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젝트G' 문건과, 이 부회장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는 삼성 임직원들의 진술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은 이전과 같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다. 검찰이 2년 가까이 50여차례 압수수색에 430여회 소환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음에도 뚜렷한 증거를 찾는데 실패했다며, 범죄 사실을 소명하지 못했다고 기소의 불합리성을 강조할 것으로 추측된다.

현안위는 논의를 끝내면 표결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과반수가 동의해야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동수가 되면 별다른 결정 없이 심의를 종결하게 된다.

심의 결과는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지만, 공개된 내용으로만 보면 이 부회장이 위법 행위를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내세우는 '프로젝트G' 문건에 대해 이 부회장이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부회장이 개입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증언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한 매체에서는 삼성증권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주가를 조작한 정황과 함께, 이 부회장이 사모펀드인 앨리엇의 경영권 공격에 직접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가 공개되지 않은데다가, 이 부회장 측이 전면 부인하고 나서면서 수사심의위를 앞둔 검찰측의 '홀리기'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빠르면 26일 저녁에 나오지만, 더 늦춰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사안이 중대해내다가, 검토할 자료도 방대하기 때문이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 이통3사, 재난시 로밍으로 통신 연결

### 이통3사-과기부

이동통신 재난로밍 시연 행사 개최  
각 사, 100만 회선 수용 전용망 구축

화재 등으로 특정 통신사의 통신 서비스가 끊기더라도 해외 로밍 하듯이 다른 통신사를 통해 음성 통화, 문자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 LG유플러스와 함께 SK텔레콤 분당 사옥에서 '이동통신 재난 로밍 시연 행사'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동통신 재난 로밍은 화재 등으로 통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 망으로 음성·문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하는 서비스다. 화재로 A사의 기지국이나 교환기가 피해를 입은 경우 B사 통신사 망을 통해 바로 통화할 수 있는 식이다.

이를 위해 이통3사는 각 사별로 약 100만 회선을 수용할 수 있는 재난로밍 전용망을 구축했다. 통신 재난 발생 시 재난 통신사의 사업자식별번호(PLMN)를 비재난 통신사의 기지국에서 송출해 해당 단말기에 로밍을 적용한다.

통신 재난 발생 시 통신 재난 경보가

발령되며 재난이 발생한 특정 통신사의 5G·LTE 고객은 별도의 조치없이 다른 통신사의 LTE망을 통해 음성 통화, 문자 등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말기나 유심 교체 없이 바로 가능하다.

3G 이용자의 경우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통신사의 대리점에서 재난 기간 동안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에 가입하고 유심을 개통하면 된다. 착신전환 서비스를 적용해 기존 번호로 착신되는 전화를 수신할 수 있다. 재난이 종료된 후 재난 발생 통신사에 재난기간 동안 사용한 요금을 신청하면 사후 보상이 가능하다.

이번 시연은 KT와 LG유플러스 기지국에 재난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SK텔레콤 기지국에 KT와 LG유플러스의 단말을 연결, 음성통화나 문자 전송 등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과기정통부장석영 제2차관과 SK텔레콤 강종렬 ICT 인프라센터장, KT 이철규 네트워크부문장, LG유플러스 권준혁 NW부문장 등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직접 로밍 통화를 시연했다.

/김나인 기자 slkni@



### 6·25전쟁 70주년... 참배객 없는 현충원

6.25전쟁 70주년인 25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은 수도권 공공시설 및 다중시설의 한시적 운영중단 방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일반시민의 방문을 제한하고 있다.

/뉴스

## 중소 하반기 전망 '우울'... 내수·수출부진 우려

중소기업중앙회 912곳 설문조사  
SBHI, 작년 동기비 17.1p 하락  
상반기 경영, 10곳 중 7곳 악화

<2019-2020년 상반기 경영실적 비교·상-하반기 비교전망> /중소기업중앙회

구분	19상반기 대비 20상반기 경영실적(%)				20상반기 대비 하반기 전망(%)			
	악화	보통	호전	SBHI	악화	보통	호전	SBHI
제조업	73.8	24.5	1.7	48.4	71.4	26.2	2.4	49.7
서비스업	68.9	30.2	0.9	46.2	64	31.8	4.2	53.4
전체	71.4	27.3	1.3	47.3	67.8	28.9	3.3	51.5

중소기업들이 바라보는 올해 하반기 경기가 기준점(100)의 절반을 간신히 넘길 정도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내수 침체, 수출 부진 등이 이어지면서 하반기도 우울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또 올해 상반기 경영 실적은 10곳 중 7곳이 나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10일부터 19일까지 중소기업 912곳을 대상으로 '업종별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2020 하반기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해 25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하반기 경기전망 지수(SBHI)는 51.5로 전년 동기의 68.6보다 17.1포인트나 하락했다.

SBHI는 100을 기준으로 '긍정'이 많으면 100 이상, '부정'이 많으면 100 이하로 각각 향한다.

특히 하반기에는 제조업의 경우 ▲자동차 및 트레일러업(21.4) ▲귀금속·인형·악기등)기타제품업(28.6)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업(33.3)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35.7) ▲기타 기계 및 장비업(38.1) ▲가죽가방 및 신발업(42.9) ▲가구업(45.2) 등의 업종이 부진할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중에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31.1) ▲숙박 및 음식점업(34.4) ▲운수업(44.4) ▲부동산업 및 임대업(48.9) ▲교육서비스업(52.2) ▲도매 및 소매업(54.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55.6) 등의 업종이 부진할 전망이다.

항목별로는 매출, 영업이익, 자금사정, 공장가동률 모두 전년보다 크게 악

화됐다. 또 역계열인 인력수준·재고수준·설비수준은 경기침체 영향으로 '과잉'을 보였다. 역계열의 경우 숫자가 '과잉'으로 나타나면 그만큼 인력, 재고, 설비가 생산 활동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남아둔다는 이야기다. 하반기 예상되는 애로요인으로는 내수부진(79.1%), 자금조달곤란(39.0%), 업체간 과당경쟁(31.7%) 순으로 나타나 '내수위축'과 '자금조달'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한 올해 상반기 경영실적에 대해선 10곳 중 7곳이 '악화'됐다고 응답(SBHI 기준 9.6포인트 하락)해 코로나로 인한 기업경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호 기자 bada@

## 과기정통부, ICT 스타트업 육성사업 대상 선정

16개 스타트업 선정, 3년간 지원  
개발 제품·서비스 시장 진출 목표

체 운영하는 창업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인프라 제공,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도 민간 협력 기반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참여할 16개 스타트업을 최종 선정하고 본격 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부와 대기업이 ICT 분야의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을 3년간 협력 지원함으로써 스타트업이 핵심기술 개발을 앞당기고, 개발된 제품·서비스가 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정기업에게는 정부가 연간 2억원(올해는 1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총 3년간 지원하고, 대기업은 자

이 사업은 지난 3월 공모를 진행해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중심의 ICT 분야에서 총 53개의 스타트업이 과제를 제안했고, 기술성·사업성 등 평가를 거쳐 최종 16개 과제가 선정됐다.

과기정통부 오상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기존 정부가 주도하는 스타트업 육성정책은 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민·관이 합심하는 사업을 통해 스타트업이 멘토기업과의 개방형 협력으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스타트업이 ICT 분야 신시장을 이끌어가는 핵심주체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